

북한 최고지도자의 권력 공고화 과정 연구

— 숙청을 중심으로 —

권 지 민*

•요 약•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체제 동안 권력을 공고화하고 독재를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숙청을 그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이 연구는 숙청을 단순한 정치적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3명의 독재자의 숙청형태를 분석함으로써 숙청의 세부 범위를 범주화하고, 그 맥락에서 북한에서의 숙청을 재해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숙청의 형태는 크게 그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숙청과 지도자에 반하는 세력, 그리고 지도자에 영향을 끼칠 만큼 확장된 세력에 대한 숙청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분류는 다른 사회주의 체제국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집권 초기 ‘공포정치’로 일컬어 지는 김정은의 숙청을 통한 정치형태는 김정은 정권만의 독단적인 행태가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 정권부터 이어져 온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숙청, 권력 공고화

I. 서론

1. 문제 제기

2011년 12월 17일, 북한의 절대 권력이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였다. 이후 북한의 최고지도자로 등장한 김정은은 집권 초기에 자신의 권력 입지를 공고히 하고 군부의 절대 충성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고모부인 장성택을 비롯하여, 리영호 총참모장,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등 김정일 집권 당시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세력들을 숙청하였다.

* 육군3사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이러한 김정은의 집권 초기의 권력 공고화 과정에서의 여러 숙청 사례는 김정일의 ‘선군 정치’와 비교하여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는 여러 담론들이 존재하였다.

언론에 많이 제보되었던 “특권층이 배신할지 모른다는 불안감(不安感)이 커지면서 공포정치로 이어진다¹⁾”는 담론이나, “최근 잇단 간부 숙청으로 공포 정치를 시행 중인 북한 김정은²⁾”이라는 주제의 여러 담론들이 대표적이며, 김정은이 권력을 공고화 하기 위해 숙청을 비롯한 공포정치를 행하고 있다는 것이 집권 초기 몇 년 동안 화두가 되었다. 또한, 당시 국정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총살된 간부는 70명이 넘으며, 처형 숫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³⁾.

하지만, 북한의 지도자가 정권을 잡으면서 흔히 말하는 ‘피의 숙청’이 있었던 것은 비단 김정은 정권만의 독특한 행태가 아니다. 김일성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초기 권력 공고화 시절에 소련파, 국내파, 갑산파, 연안파 등의 당대 공산당을 이끌었던 주요 인물들을 숙청하고 ‘8월 종파사건’이라 불리는 일단의 숙청을 단행했었다. 김정일 역시 북한에서 6·25전쟁 영웅으로 떠받들여졌던 남일 대장을 1976년에 숙청한 것을 비롯하여, 권력 세습과정에서 자신의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한 숙청과 동시에 주요 반대 인사들을 정치수용소에 대거 수감시켰다.

하지만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정권의 숙청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각각 나름의 특수성을 엿볼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집권 초기 북한 핵심 엘리트들의 숙청을 통한 ‘공포정치’로써 각광을 받았던 김정은의 행태가 실제로는 북한 내에서 쏠쏠 일가들이 공통적으로 권력을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행태라는 것을 밝힘과 동시에,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이 각각 단행했던 숙청의 차이점을 분석하는 것에 있다.

북한에서 김씨 일가들이 매 세대마다 권력 공고화를 위해 숙청이라는 수단을 선택한 것은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에서 숙청이 권력 경쟁에서의 수단으로 자주 사용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회주의 국가는 투표를 통한 지도자 선출보다는 이전 지도자에 의해 지목된 후계자가 승계를 받는 형태로 지도체제가 지속되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 지도자의 정통성을 인정받는 민주주의 국가와는 다르게 사회주의 국가의 지배자는 안정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이 같은 이유로 소련의 지도자들을 비롯하여 북한의 지도자들 또한 숙청이라는 수단을 통해 권력을 강화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증대했다. 따라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집권 시기에 나타난 숙청을 비교·분석하여 숙청

1)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80173>, (검색일: 2023.10.27)

2)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275880#close_kova (검색일: 2023.10.27)

3)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303056#close_kova (검색일: 2023.10.27)

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숙청의 정치적 영향에 대해 분석하는 것은 북한 권력의 역학관계를 엿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또한 지도자가 숙청이라는 수단을 자신의 권력 공고화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하였는지를 정치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 연구에 있어서 함의점을 제공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숙청은 잘못된 일을 벌인 사람을 없애는 것으로 정당성이나 부당성이라는 가치가 배제된 개념이며, 체제 위기 혹은 사회체제의 구성원들을 동원시켜야만 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상징조작의 한 가지 방법이다.⁴⁾ 숙청은 권력의 상대적 우위에 있는 존재에 의해 행해지는 일방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항상 합리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합리적인 숙청도 존재하고, 설령 비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을 대중 혹은 국민에게 납득시킬 수 있다면 합리성을 인정받는다. 또한 숙청은 위기의 상황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위기의 상황’의 설정도 권력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개인 혹은 소수의 이익을 위해 이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체제 변혁을 계획하던 세력에 대한 숙청과 같이 숙청의 목적이 체제의 유지 혹은 국가 이념의 공고화 등이 공익일 수도 있다.

숙청은 지도자의 특정 요인에 대한 주관적 기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후계구도 혹은 승계과정과 연계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는 권력의 승계에 대한 제도화가 미비하기 때문에 지도자는 승계과정 혹은 후계 구도로부터 받는 권력 위협에 대한 대응책을 항상 준비하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는 상호 감시가 일상화되어있기 때문에 권력 위협의 요소가 쿠데타보다는 지도자 주변 세력에서의 확장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승계 혹은 후계 과정과 숙청과의 상관성은 높으며 따라서 승계에 관한 기존 연구들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승계는 다양한 기준과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 이우정에 따르면 승계발단의 계기에 따라 자연적 승계와 인위적 승계가 존재하고, 권력 이전의 정도에 따라 완전, 부분, 단독, 집단으로 나뉘 수 있으며, 권력승계의 성격에 따라 세습적 혹은 비세습적 승계로 나누어지고, 권력창출의 방식에 따라 혁명적 승계인지, 민주적 승계인지가 결정된다.⁵⁾

사회주의 체제의 권력승계에서의 정통성 획득에 관해 연구한 넬슨(Daniel N. Nelson)

4) 이종석, “박헌영과 김일성: 한국공산주의자운동의 두 지도자의 길”, 『한국 현대사의 라이벌』, 서울, 역사비평사, 1992. pp.191-192.

5) 이우정, “사회주의국가의 권력승계에 관한 이념과 사례”, 『북한학연구』, 제23호,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1993. pp.24-30.

은 사회주의체제 하에서는 제도화된 권력교체의 장치가 없기 때문에 승계권력이 스스로 정통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넬슨은 사회주의 체제의 권위 요소로 카리스마, 행정적 통제, 무력에 의한 강압이라는 세 가지를 제시하면서 권위 요소가 통치방법과 연계되는 방식을 설명한다.⁶⁾

사회주의 체제의 경우 특히 권력승계의 제도화가 부재하고, 권력의 의인화 성격이 두드러지며, 폐쇄적인 권력승계가 이루어진다. 후계자 지명의 철회나 숙청의 과정에서도 명목상의 이유는 존재하나 진실성이 결여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강력한 선임자-후계자 관계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되는데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선임자는 후계자를 지목하는 권한을 지님과 동시에 지목을 철회할 절대적 권한도 소유한다. 실제로 후임자가 선임자를 위협할 정도의 신임이나 칭송을 받을 경우 선임자에 의해 숙청되는 사례가 존재했으며 이는 숙청과 후계구도 사이의 연관성을 높이는 요소이기도 하다.

숙청이 왜 일어나는가에 연관될 수 있는 승계에 관한 연구는 헤르츠(John Herz)의 독재자의 승계의 딜레마에 관한 연구이다. 그는 독재자에게 세 가지 승계 경로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첫 번째는 독재자는 후계자를 지명하거나 예비할 수 있는데 이는 야망을 가진 후계자가 도전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두 번째는 후계자 지명을 거부할 경우인데, 이 경우는 후계를 비롯한 주요한 시점에 위기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마지막으로 후계를 제도화시키는 경우인데 제도화와 독재체제가 공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독재자에 대해 반대하는 집단 혹은 세력이 형성될 위험이 있다.⁷⁾ 결국 독재자는 후계 선택에 있어 모든 선택에 딜레마가 존재한다. 헤르츠의 연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독재자는 필연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한 끊임없이 지속적인 위협 혹은 딜레마에 대응할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소련은 집단지도체제를 권력 체계로 설정했으나, 중국과 북한은 공산당 일당 체제 하에 개인 독재적인 성격을 지닌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모두 정치적 선택에 있어 개인의 판단과 주관이 매우 큰 영향력을 갖기 때문에 사실상 독재 지배라고 여겨도 무방하다. 따라서 쉰씨 일가의 3대 승계과정에 있어서 김정일과 김정은은 독재자의 딜레마와 같은 위협을 항시 느끼고 있었을 것이며, 이에 대한 반응 혹은 대응방식으로 숙청이라는 수단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승계과정에 있어 숙청의 연구와는 별도로 이 연구의 목적에 맞는 북한의 숙청에 관한 연구들도 다수 존재한다. 류길재는 김일성 시대 숙청되었던 사례들을 연구하였는데, 특히

6) Daniel N. Nelson, "Charisma, Control, and Coercion: The Dilemma of Communist Leadership", *Comparative Politics*, Vol. 17, No 1, 1984. p.2

7) Herz, John H, "The Problem of Successorship in Dictatorial Regimes: A Study in Comparative and Institutions", *The Journal of Politics*, Vol.14(1), 1952. pp.33-34

1960년대의 숙청의 경우 단지 고위 엘리트들이 제거된 데 그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을 하여 정치구조변화의 결정적인 원인변수라고 분석을 하고 있다.⁸⁾ 그의 연구는 권력 공고화를 위한 목적으로 숙청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는 점이 있다. 스즈키 마사유키는 그의 논문에서 북한에서 일어난 일련의 숙청의 과정이 북한 인민군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컸다고 정의함으로써 사회주의 체제국에서의 권력 공고화 과정에서의 숙청이라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⁹⁾ 박형중의 연구는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의 권력 세습 과정에서 기관과 엘리트 사이에 권력 및 이권 관련 경쟁에서 장성택이 그 주역이었으며, 그의 숙청이 이와 관련되어었다고 분석함으로써 ‘충성 경쟁’을 유발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써 숙청을 해석하고 있다.¹⁰⁾ 또한 김홍광의 연구는 김일성 시기에 있었던 8월 중과사건과 갑산과 숙청사건, 김정일 시대 심화조 사건, 김정은의 장성택 사건을 비교하면서 숙청은 북한식 독재체제의 생존방식이라 정의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일치하는 면이 있다.¹¹⁾ 같은 맥락에서 조한범은 김일성과 김정일 모두 자신의 권력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측근 세력들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이들에게 충성을 유도하기 위해 언제든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였으며, 또한 이들은 언제든지 숙청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고 분석을 하며, 김일성, 김정일은 끊임없는 숙청을 통해서 권력 기반을 강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¹²⁾ 이외에도 숙청에 관한 참고자료는 여러 가지 매체의 언론 보도자료와 신문 칼럼, 북한 관련 월간지 중 숙청에 관한 기고들을 참고하였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에 있어서 드러난 한계점을 분석해보면, 첫째, 숙청에 관한 검색어를 각종 학술포털에 입력해보면, 프랑스 대숙청에 관한 논문과 중국공산당의 숙청, 김일성의 숙청에 관한 연구는 많으나 김정일, 김정은의 숙청에 관한 연구는 많이 없었으며, 있더라도 추정하는 정도의 정책 제안 형태의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둘째, 북한의 지도자들에 있어 권력 공고화 과정에서 숙청이라는 방식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 세 부자의 숙청에 대해 비교·분석하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숙청을 정치학적으로 해석하고 세 부자의 숙청과정을 비교함으로써 사회주의 체제국, 특

-
- 8) 류길재, “1960년대 북한의 숙청과 술탄니즘(Sultanism)의 등장”, 『국제관계연구』 제9권 제1호,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04. pp.77-80.
 9) 스즈키 마사유키(Suzuki Masayuki), “북한 인민군의 유일사상체계 확립 -‘군벌관료주의자’ 숙청과 비대칭 전략 완성”, 『한일공동연구총서』, 연구총서7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2004. pp.142-145.
 10) 박형중 외, “수령독재 하에서 권력과 이권을 둘러싼 갈등 동학 그리고 장성택 숙청”, 『북한연구학회보』 제18권 제1호, 북한연구학회보, 2014. pp.1-3.
 11) 김홍광, “숙청은 북한식 독재체제의 생존방식”, 『통일한국』 361권, 평화문제연구소, 2014. pp.18-19.
 12) 조한범, “잔혹한 피의 숙청 김정은 시대에도 대물림?”, 『통일한국』, 380권, 평화문제연구소, 2015. pp.28-31.

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일컫는 북한에 있어서의 숙청은 권력 공고화에 있어서 보편적인 현상이었음을 밝히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II. 숙청을 통한 김씨 일가의 권력 공고화

1. 김일성의 숙청

김일성의 숙청에 관한 연구는 선행되었던 것이 많고, 실제 소련과 중국을 통한 공개 사료로 인해 밝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김정일과 김정은의 숙청사건들에 비해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치적인 맥락에서 보았을 때, 김일성의 숙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설립 과정과 설립 후 집단 지도체제에서 1인 지배체제로 가는 과정, 그리고 공고화 하는 과정에서 모두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건국 과정에서는 오기섭과 조만식의 숙청을 예로 살펴볼 수 있다. 당시 북한에는 스탈린 지지 하에 훈련을 받다가 북한으로 귀국한 항일빨치산 그룹인 김일성과, 소련계 한인 공산주의자였던 소련파, 해방 전 중국공산당과 함께 했고 연안에서 항일투쟁을 했던 한인 공산주의자인 연안파, 해방 이전까지 국내에서 일제에 대항해서 공산주의 운동을 한 오기섭, 리주하, 박현영, 이영 등이 속해있던 국내파(박현영파)¹³⁾로 파벌이 나뉘어 있었다. 4개의 파벌 중 초기 김일성파는 큰 세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으나 소련의 지지와 후견하에 세력을 확장했다. 김일성은 1945년 12월에 이미 자신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에게 ‘종파주의자’라는 딱지를 붙였고, 이는 소련의 후견 하에서 조선의 공산당의 지도자로 김일성이 선택되었음을 의미했다.

김일성은 초기 오기섭을 고립시키기 위해 오기섭 추종자를 제외한 모든 파벌을 연합하여 反오기섭 파벌을 형성하는 전략을 사용했다. 오기섭은 경제 체제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가지고 작성한 논문¹⁴⁾으로 인해 당 중앙상무위원회, 북로당 중앙위 확대회의에서 수

13) 김국후, 『비록: 평양의 소련군정-기록과 증언으로 본 북한정권 탄생비화』 (과주: 한울아카데미, 2004), pp.109-115.

14) 오기섭은 1947년 3월 13일자 <로동신문>(제60호)에 「북조선 인민 정권하의 북조선 직업동맹」이라는 논문을 게시했는데, 이는 당 중앙상무위원회 제 28차 회의 결정서에서 파업과 태업을 조장했으며, 북조선의 국유화 조건 하의 산업기관들을 부르주아 제도의 개인소유 산업과 동일시하였으며, 소부르주아적 공심화 의혹을 발로하여 분쟁을 미리 예방하려 했고, 북조선의 발전과 부흥을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애국적 기술자들을 멸시하여 그들의 민족적 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비판당했다. 백학순, 『북한 권력의 역사』 과주, 한울아카데미, 2010. p.36.

차례에 걸쳐 비난당했으며, 김일성에게도 직접 공격 당했다. 결국 그는 ‘종파주의자’로 낙인 찍혀 숙청당한다.¹⁵⁾ 오기섭의 숙청에 관해서는 김일성과 소련 두 행위자 모두가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김일성은 이미 소련에 의해 지위가 어느 정도 공고화된 상태였고 소련 공산당의 노선을 수용하여 다른 파벌들에 비해 정치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오기섭은 정책 노선에서 소련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고 소련에서도 오기섭을 숙청하는 것에 지지를 보냈을 것으로 예상되며 김일성이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다. 김일성은 권력 경쟁 초기에는 동등한 세력을 누리고 있던 오기섭을 소련의 보호와 김일성의 파벌 연합전략을 통해 희생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오기섭 세력이 약화되자 김일성의 다음 타겟은 조만식이었다. 조만식은 김일성과는 다르게 자산계급의 이익을 옹호했고, ‘조선민주당’을 통해 의회제 민주공화국을 수립할 것을 주장했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한반도 신탁통치안이 결정되었고, 소련은 신탁통치에 찬성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조만식은 민족통일전선을 주장하며 이를 거부한다. 결국 소련과 김일성에 의해 ‘가(假) 애국자 민족반역자’라는 이유로 숙청당한다. 조만식의 숙청과정에도 역시 오기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련이 숙청과정에 깊게 관여하고 있다.

유일지배 확립과정에서 무정, 허가이, 박현영은 6·25전쟁을 계기로 숙청을 당한다. 6·25전쟁이 발발하고 반년쯤 뒤인 1950년 1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를 통해 김일성은 무정에게 ‘전투를 옳게 조작하지 않고, 많은 손실을 가져왔다.’는 명목으로 제 2군단장이라는 직위에서 해임시켰고, 명령불복종, 전투에서의 불성실, 전투의 패배 등 여러 죄목을 덧붙여 숙청하였다.¹⁶⁾

무정의 숙청 이후 1951년 1월에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는 소련파였던 허가이가 숙청된다. 숙청의 명분은 농민들의 로동당입성을 막았다는 ‘관문주의’와 가혹한 책벌로 인한 당원들의 출당이 잦아져 당의 행적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당을 와해하려는 의도였다는 것이었다. 김일성은 6·25전쟁 시작부터 소련과의 지도자로 여겨졌던 허가이에게는 아무런 직위를 주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전부터 김일성은 허가이와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은 이념보다는 ‘당’에 더 많은 정체성을 형성했지만, 허가이는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이념 자체에서 정체성을 형성했다.¹⁷⁾ 그러나 김

15) 백학순, 위의 책, pp.48-61.

16) 안문석, “무정 숙청의 정치적 원인과 무정의 대응”, 『통일정책연구』, 제24권 1호, 통일연구원, 2015. pp. 150-151.

17) 백학순, 『북한 권력의 역사』,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0. p.119.

일성에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연안파의 대표였던 무정에 이어 소련파의 대표인 허가이를 숙청함으로써 자신의 경쟁자를 제거하려던 목적이었다.

마지막으로 6·25전쟁을 통해 숙청당한 김일성의 경쟁 세력은 박헌영파였다. 박헌영에 대한 숙청의 조짐은 조선로동당 제5차 전원회의에서부터 시작된다. 김일성은 ‘종파주의자의 잔재’에 대해 지적하면서 이들을 축출해야만 이념적 순결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의 ‘이념적 순결성’은 이데올로기라기보다는 김일성의 사상에 가까웠으며 이에 대항하는 세력은 ‘종파주의자’ 혹은 ‘간첩’으로 취급하여 제거했다. 종파주의자 제거를 외치며 박헌영 숙청의 기회를 노렸던 김일성은 박헌영파의 인사들이 정권의 전복을 꾀했고 미제간첩이었다는 죄목으로 체포한다. 이는 파벌 간 권력투쟁의 결과였으며 김일성만이 참여한 것이 아니라 박헌영파를 견제하던 소련파와 연안파의 세력 규합도 영향을 주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제6차 전원회의를 통해 알 수 있다. 회의를 통해 남로당 출신과 민주주의 민족전선 출신의 대부분의 남한 출신 인사들이 숙청당했고, 김일성파의 인사들이 그 자리에 채워졌다. 박헌영의 숙청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존재하는데, 그 뒤에 소련이 있었다는 증언도 일부 나오고 있다.¹⁸⁾

김일성의 숙청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소련파와 연안파를 숙청했던 8월 종파 사건이다.¹⁹⁾ 이 사건으로 인해 김일성의 유일지배체제는 완성기로 접어들게 된다. 1956년 4월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3차 대회에서는 같은 해 개최된 소련공산당 제20차 대회의 스탈린의 개인숭배비판에 대한 내용에 영향을 받아 북한 내 개인숭배 내용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김일성은 개인 숭배에 대한 비판을 피해 갔으며²⁰⁾ 오히려 김일성 유일지배체제가 확립되었다. 더해서 전후 복구를 위한 경제 노선의 채택 과정 또한 단순한 경제 정책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김일성에게 위협이 되는 세력들에게서 권력을 빼앗기 위한 투쟁의 양상을 보였다. 평소에도 김일성의 개인 숭배에 관한 강요 및 김일성의 경제 노선 등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연안파와 소련파에게 이러한 김일성의 태도는 불안을 초래했다.²¹⁾

부수상 겸 재무상을 맡고 있었으며 소련파였던 박의완은 제3차 당대회에서의 김일성의

18) 김덕홍, 『나는 자유주의자이다』, 서울, 집사재, 2015. pp.111-113.

19) 종파는 사회주의체제에서 반당적, 반국가적, 반혁명적이라는 수식어로 쓰이며, 북한의 <정치사건>에 따르면 종파주의는 혁명의 이익에는 관심이 없고 개인 혹은 협소한 파벌의 이익만 노리면서 노동계급과 그 단체의 통일단결을 파괴하는 반당적이고 반혁명적인 부르주아 사상이다. 백준기, “8월 종파문제 재론: 종파, 분파, 그리고 당내경쟁”, 『역사비평』, 통권 74호, 역사비평사, 2006. p.330.

20) 이신철, 『북한 민족주의운동 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2008. pp.313-314.

21) 정창현, “사건으로 보는 북녘 역사: 당내 갈등 ‘8월 종파사건’으로 폭발 천리마운동 추진결정”, 『민족21』 2011년 8월호(통권 제 125호), 민족21, 2011. pp.138-141.

많은 실수에 대해 소련공산당의 개입을 요청했고, 같은 파벌이었던 박길룡이 소련공산당 인사들과의 대화에서 김일성의 개인 숭배는 지속되고 있으며, 김일성과의 인사들이 무원칙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²²⁾ 연안파였던 최창익 역시 소련공산당이 북한의 진전과 발전을 위해 소련공산당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모든 과정은 1956년 5월을 시작으로 김일성이 정부대표단과 함께 원조를 받기 위해 동유럽 및 몽골, 소련을 방문한 시기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반혁 계획은 누설되었고 김일성은 이에 대항하기 위한 전원회의를 연기했으며 이 사이에 주모자들에 대해 협박 혹은 포용의 전략을 사용했다. 8월 전원회의가 열리기 전 반혁시도를 포기한 몇몇을 제외하고, 주로 연안파였던 최창익, 윤공흙, 서휘, 리필규, 박창옥 등이 ‘중과적 음모행위’를 했다는 죄목으로 맡고 있던 직책을 철직당하고 당에서 제명당한 이 사건을 ‘8월 중과사건’이라고 부른다. 숙청당한 이들은 중국으로 도피하여 소련공산당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당시 개인 숭배 비판 운동에 힘쓰던 소련은 김일성 개인숭배를 지지한다고 여겼고, 중소가 함께 김일성의 숙청에 개입하기로 합의했다. 중소공산당의 대표단이 9월 평양에 도착했고 당시 중소의 경제적 원조가 필요했던 김일성은 어쩔 수 없이 ‘8월 중과사건’에서의 숙청을 철회했고, 9월 전원회의에서 소련과 및 연안파로부터 비판을 받아야 했다.²³⁾

그러나 김일성은 중소 대표단이 북한을 떠나자 중과를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반중과 투쟁’을 시행하여 ‘8월 중과사건’에서 숙청되었던 세력을 모두 재숙청한다. 이들은 반당, 반혁명, 사대주의자 라는 죄목으로 숙청되었고, 대다수의 연안파와 소련파의 빈자리는 김일성과의 인사들로 채워진다. 김일성의 유일지배체제는 이로 인해 강화되었으며, 잔존하던 소련파도 ‘수정주의자’라는 죄목으로 숙청하거나 소련으로 망명되어 북한에는 김일성파들만이 당에 남게 된다.²⁴⁾

‘8월 중과사건’이 김일성 유일체제 개척의 계기이자 완성의 단계였다면, 1967년에 시작된 갑산파 숙청은 김일성 유일체제를 확고히 하고 권력을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의 숙청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연안파와 소련파를 몰아낸 김일성의 친위세력인 만주 빨치산파의 권세는 막강하였는데 김일성은 갑산파도 못 믿겠다고 결단한다. 문체의 갑산파는 1966년 이 후 김일성의 국방·경제 병진노선을 두고 김일성의 친위세력과 대립했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갑산파의 김도만 당시 노동당 선전담당비서 겸 선전선동부장은 ‘인민경제 우선정책’을 주장했고 “기업소에서 당 일꾼의 역할을 줄이자”며 김일성의 ‘대안의

22) 백학순, 『북한 권력의 역사』,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0. pp.320-332.

23) 고봉기 외, 『김일성의 비서실장: 고봉기의 유서』, 서울, 도서출판 천마, 1989. p.111.

24) 백학순, 위의 책, p.561.

사업체계'와 '청산리 방법'에도 반대했다. 그는 갑산파의 중심인물인 박금철 당시 내각 부수상을 위해 '일편단심'이란 선전영화까지 만들면서 갑산파의 권력 강화를 시도했다. 자신의 심복을 통해 철저한 내부조사를 벌인 김일성은 1967년 3월 비밀리에 당중앙위원회 4기 15차 전원회의를 열어 갑산파 숙청을 단행했다. 단서는 유일사상체계에 반한다는 명목이었다. 뜻밖에 터진 갑산파 숙청은 전원회의 직 후 시작되어 다음 해까지 계속되었다. 1968년 중반 지방의 중견간부 3분의 2정도가 숙청 될 정도로 규모도 상당히 컸으며, 김일성 유일체제의 기반으로 평가받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도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 김일성에 대한 '수령' 호칭도 정확히 이때부터 시작되었다.²⁵⁾

2. 김정일의 숙청

김정일 시대의 숙청은 선행연구가 많지 않다. 김정일의 경우 위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승계나 후계과정에서의 숙청은 적을 수 밖에 없는 후계구도를 형성해 왔다. 김정일은 대학 졸업과 동시에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지도원으로 들어가 1967년 당 선전선동부장이 되었으며 1972년 12월 당 제5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비밀리에 후계자로 결정되었다. 다음해 1973년 당 제5기 7차회의에서 당비서에, 그리고 1974년 2월 제8차 회의에서 정치위원에 선출되었고 1980년 10월 당 제6차 전당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 비서,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어 명실공히 제2인자의 자리를 굳혔다.²⁶⁾ 이후 1994년 김일성 사망하기까지 약 15년이 넘는 시간동안 후계자로서 정치의 실권을 장악한 김정일의 경우, 김일성처럼 알려진 숙청은 많지 않으나 각종 첩보와 탈북자들을 통해 알게 된 숙청은 존재한다. 이것 역시 자신에 대한 반혁명세력들에 대한 숙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극히 정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의 숙청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이 없다. 누구를 죽여서 없앤단건가 하는 숙청 외에 자신의 후계자에 걸림돌이 되는 친지 숙청을 먼저 실시하였는데, 그의 계모 김성애의 자식들에 대한 정치적 숙청이다. 김성애는 김일성과의 사이에서 딸 김경진, 아들 김평일, 김영일 등 2남 1녀를 두고 있었는데, 김정일은 계모 김성애를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았고, 사이도 좋지 않았다. 김정일이 1960년대 말 아버지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 혈안이 되어 동분서주하던 시기에 가장 큰 걸림돌은 그의 삼촌인 김영주와 계모 김성애였다. 당시 김영주는 식물성 신경부조화증이라는 병에 걸려 건강이 좋지 않았다. 거기에 김정

25) 립일, "김씨왕조 3대 숙청사(上)", 『월간북한』, 2014년 3월호, 북한연구소, 2014. pp.115-116.

26) 이상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세습", 『북한정치변천-신정체제의 진화과정』, 서울, 오름, 2014. pp. 89-90.

일과 권력투쟁까지 생기자 악화된 병세를 얻었고, 김정일은 김영주를 자강도로 유배 보낸다. 김평일의 경우 당시 북한의 고위간부들이 ‘김일성의 후계자는 김평일’이라고 확신할 정도로 김정일에겐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다. 사실 김평일은 김정일의 정치적 견제가 없었다면 북한에서 군대의 큰 재목이 됐을 가능성이 높았으나, 1974년 2월 김정일이 정식 후계자가 되면서 1979년 말 김평일을 유고 주재 북한 대사관 무관으로 쫓아내면서 정치적인 숙청을 단행하게 된다. 이후 김평일은 헝가리아 대사, 핀란드 대사로 발령돼 평양에 들어오지 못한 채 해외에 머물고 있다.

김정일의 숙청하면 가장 유명한 사건이 1997년부터 2000년 사이에 일어났던 ‘심화조 사건’이다. 당시 웬만한 군소도시에서 하루 평균 200~300명의 인민들이 굶어죽어나던 고난의 행군 시기였기 때문에, 눈에 핏발이 선 인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찢었고 민심이 심상치 않아 김정일에게는 희생양이 필요했다. 그 첫 희생양이 식량담당 최고책임자였던 서관희였다. 서관희를 남조선 안기부에 예속된 첩자, 미국의 고용간첩이라고 덮어 씌우고 잔인하게 숙청하게 되고, 그다음은 이른바 ‘룡성사건’이라고 불리는 숙청이다. ‘최고존엄’ 암살이 목적인 괴뢰군부대가 적발되면서 여기서 빠져나간 일부 세력들이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간첩망을 이루었다는 말로 간부들의 간첩수사망을 확대하여 나갔고, 없는 것도 만들어서 김정일에게 보고되었기에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게 되는데, 이때 발견된 간첩들은 대부분 김일성 시대의 사람이었으며 이미 죽었거나 나이가 들어 집에서 쉬고 있던 노인들까지 모두 끌어내 총살하였다. 심지어 1984년에 죽어 혁명열사릉에 묻혔던 당중앙위원회 농업부장 김만금의 무덤까지 파헤쳐 공개재판을 한 후 유골에 사격을 가하는 패륜아적인 정권의 모습도 서슴없이 보여주었다. ‘룡성간첩사건’의 희생자가 된 사람들 중에는 최고인민회의 법무부장, 농업위원회 부위원장, 청도성 보위부장, 량강도당 조직비서 등 7~8명의 군당책임비서, 안전부장 등이 있었다.

품종개량 기름작물인 ‘기름꿀’을 일반화하는데 성공하여 김일성으로부터 노력영웅으로 인정을 받은 백설희의 숙청도 김정일의 수단이었다. 백설희가 서관희의 애첩이며 그와 결탁하여 당의 농업정책에 커다란 해독행위를 가했다고 죄를 덮어씌우고 백설희는 70고령의 그의 어머니와 동생, 조카들과 함께 강원도 천내군 천내탄 광의 굴속으로 끌려가 숙청을 당하게 된다.²⁷⁾ 또한 김정일이 후계지위를 굳히던 시기였던 1976년 김동규 부주석과 장정환 인민무력부 부부장, 유장식 대남사업담당 등 일단의 세력도 김정일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다 숙청되었고, 1992년에는 김정일이 소련유학과 장교단 일부가 소

27) 김정일의 숙청에 관한 내용은 탈북작가 립일이 기고한 내용 전체 중 일부를 줄여서 요약하였다. 립일, “김씨왕조 3대 숙청사(中)”, 『월간북한』, 2014년 4월호, 북한연구소, 2014. pp.106-113.

련과 내통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군 장악을 위한 대대적 숙청기회로 삼았다. 쿠데타 음모를 적발했다며 소련 프룬제군사대학 출신 엘리트장교 20명을 처형하고 600여명을 군복무 연한과 관계없이 강제로 제대시켰다. 이는 원응희 당시 보위사령관이 쿠데타 사건을 적발해 김정일에게 고발함으로써 밝혀지게 된다.²⁸⁾

또한 전직 CIA 요원이었던 마이클 리는 6.25전쟁 영웅이자 김일성의 최측근, 정전협정 당시 북한군 대표부를 맡은 남일 전 부수상도 교통사고를 가장한 김정일의 숙청이라고 단언하였으며, 김일성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던 오진우 전 인민무력부장 역시 김정일의 표적이 되어 숙청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다. 김정일은 자신보다 먼저 정치적으로 기반을 다져온 원로들을 숙청은 사고를 위장하여 진행을 하였으며, 이는 여러 진술들을 통해 확보되고 있다.²⁹⁾ 김정일의 숙청은 반혁명세력의 숙청, 자신의 의견에 반대되는 사람의 숙청, 그리고 기존에 확장세력을 비롯하여, 국가위기 상황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했다는 점에서 김일성의 숙청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김정일의 숙청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급사하면서 북한 내 권력을 잡은 김정은은 그의 아버지인 김정일에 비해 후계자를 공고화 한 상태에서 3대 세습자가 된 것은 아니었다. 김정일의 건강에 악 신호가 오자, 후계자 사업은 급속도로 진행되었으며 권력이 승계되는 과정에서는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갖지 못했다. 제2대 세습 때와는 달리 제3대 세습에서는 ‘장자 우선’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차남인 김정철 역시 김정일의 선택받지 못하고 셋째인 김정은이 후계자로 지명된다. 김정일 사망과 동시에 김정은은 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취임하였고 다음 해 봄에 노동당 제1비서, 정치국 상무위원, 당 군사위원장이 되었으며 헌법을 개정하여 국방위원회에 제1위원장직을 창설하고 이 직에 취임하고 같은 해 여름 인민군 원수에 취임하게 된다.³⁰⁾

김정은의 대표적인 숙청은 리영호의 숙청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리영호는 실력있는 작전계통의 군인이었으며, 김정일은 리영호를 우리의 함참의장격인 총참모장으로 발탁했었다. 2010년 9월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는 신설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28) 북한연구소 편집부, “북한 세습독재체제 숙청사”, 『월간북한』, 2015년 7월호, 북한연구소, 2015. pp.6-10.

29)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9/12/2014091290271.html (검색일: 2023년 12월 13일)

30) 이상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세습”, 『북한정치변천-신정체제의 진화과정』, 서울, 오름, 2014. pp. 91-93.

김정은과 함께 오르면서 군부의 핵심 실세로 급부상했다. 최근 입국한 고위 탈북민들은 최룡해가 군부를 장악하기 위해 사사건건 리영호와 마찰을 빚었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최룡해는 장성택과 손을 잡고 당시 이름을 날리던 리영호 숙청에 점화를 하게 된다. 리영호는 당적 지도 거부와 마약 등 부정부패라는 명목으로 숙청당하고, 리영호 숙청은 당시 군부 내에서 영향력이 컸던 군부 인사들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김정일 시대에 이름을 날렸던, 김격식, 김영춘, 현철해, 김정각 등이 나이 등을 이유로 숙청되었으며 오백룡 전 호위총국장의 아들 오철산 등 항일 2,3세대 작전계통 간부들도 군 지휘부에서 쫓겨났다.³¹⁾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로 북한에서 기득권 행세를 하고 있던 군부세력들을 숙청하고 김정은 세력들을 그 자리에 대체함으로써 김정은은 권력을 더욱 더 공고화 할 수 있었다.

김정은 시대 ‘숙청’으로 가장 유명한 사건은 바로 2013년 말 장성택 숙청사건이다. 김정은의 고모부이자 후견인인 장성택 당 행정부장과 그의 세력에 대하여 전격적인 숙청 및 처형사건이 벌어졌다. 결국 장성택은 2013년 12월 12일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을 통해 반당·반혁명 종파행위 등의 죄목 아래, 판결 직후 처형되었다. 또한 장성택 체포를 전후하여 북한 전역의 당 행정부 및 장성택 일파로 분류되는 간부들이 줄줄이 소환되어 숙청되었다. 리용하 노동당 제1부부장, 장수길 행정부 부부장 등 핵심측근들은 처형되었으며, 장성택의 측근인 문경덕 전 평양시 당 책임지서도 2014년 2월 경질된 후 정치범수용소 이송 중 음독자살을 기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³²⁾ 북한사상 전례 없이 장성택 숙청을 TV를 통해 공개한 것은, 섭정정치를 받고 있는 어린 지도자라는 콤플렉스를 세계면전에서 벗어버리려는 김정은의 호전적인 망동이었으며 치밀하게 계획하고 벌인 숙청작업이었다. 잘된 것은 수령 탓, 잘못된 것은 간부들의 반동적 행위 때문이라는 이분법적 논리가 확실한 북한에서, 장성택에게고 늘 쓰던 상투적 수법대로 죄를 뒤집어씌웠다.³³⁾ 고모부인 장성택의 숙청은 김정은의 권력 공고화에 획기적인 사건이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세계언론 및 각종 담론에는 김정은의 통치방법을 ‘공포정치’로 명명하며 김정은 아래 북한에 대해 집중하게 된다. 인민들을 통제하는 간부들의 부정과 비리는 자칫 지도자인 김정은에게로 번질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김정일 시대에서 저질러쥔 간부들의 부정부패 비리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도 계속되고 있다. 장성택의 숙청은 어찌

31) 강철환, “북한 군부 권력투쟁과 리영호 숙청”, 『월간북한』 2015년 11월호, 북한연구소, 2015. pp.102-107.

32) 북한연구소 편집부, “북한 세습독재체제 숙청사”, 『월간북한』, 2015년 7월호, 북한연구소, 2015. pp.10-12.

33) 박주현, “숙청의 회오리바람, 피로 물드린다”, 『월간북한』, 2014년 1월호, 북한연구소, 2014. p.42.

면 간부들에게 엄중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초강수를 든 시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³⁴⁾

장성택 일파 숙청 후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올라선 이들도 숙청의 칼날을 피할 순 없었다. 김정은이 장성택의 숙청을 결정했다고 알려진 삼지연 회동(2013.11.30.)을 수행했던 마원춘 국방위원회 설계국장도 순안공항 건설 부진 명목 아래 일가족과 함께 량강도 지역 농장으로 추방되었다. 2015년 1월에는 변인선 총참모부 작전국장이 대외 군사협력문제와 관련해 김정은에 이견을 제시했다가 해임되었으며, 2015년 4월 30일에는 군부 2인자였던 현영철 전 인민무력부장도 김정은에 대한 불경·불충죄를 물어 수백명의 고위 군간부들이 지켜 보는 앞에서 고사총으로 총살형을 당했다. 김정은은 집권 4년차인 2015년까지 총 70여명을 총살한 것으로 알려졌다.³⁵⁾

Ⅲ. 권력 공고화를 위한 수단 - 숙청

숙청과 후계구도에 관한 연구들을 토대로 실제 숙청과정을 분석해보면, 숙청의 원인은 반혁명 세력의 제거(8월 종파사건), 이견을 가진 세력의 제거(오기섭, 조만식 숙청사건), 확장 세력의 제거(장성택 숙청)라는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반혁명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숙청을 사용하는 것으로 헤르츠의 의견 중 후계자의 야망에 의해 딜레마가 발생하는 경우와도 유사하다. 지도자에 대해 반혁을 시도하려는 세력이 존재하는 경우 숙청을 사용하여 해당 세력을 제거하며 반혁을 시도했거나 혹은 반혁을 계획하고 있던 세력에게도 해당된다. 이 경우의 숙청은 지도자의 지위 자체에 대한 위협이므로 비교적 숙청의 합리적 사용이라고 분석될 수 있다. 북한에 있어 김일성의 경제 노선과 개인숭배체제에 불만을 품고 있던 연안파와 소련파에 의해 일어났던 '8월 종파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다.

김일성의 경제 노선 및 개인 숭배에 불만을 품고 있던 연안파와 소련파가 세력을 규합하여 반김일성 연합을 형성했고, 김일성이 경제 원조를 요청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8월 전원회의를 통해 노선의 변경을 시도하려 했다. 그러나 사전에 김일성에게 발각되었고 그들은 수정주의자 및 자본주의 노선을 추구했다는 명목으로 숙청되었으나 소련과 중국의 개입으로 잠시 복권되었다가 '반종파 투쟁'을 계기로 재숙청당한다. 당시 김일성은

34) 립일, "김씨왕조 3대 숙청사(下)", 『월간북한』, 2014년 5월호, 북한연구소, 2014. pp.102-103

35) 북한연구소 편집부, "북한 세습독재체제 숙청사", 『월간북한』, 2015년 7월호, 북한연구소, 2015. p.12.

소련과 중국의 지지를 얻던 세력들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유일지배체제를 구상하고 설립하기 위해 여타의 경쟁세력들, 혹은 반대세력들을 제거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는데 '8월 종파사건'은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소련과 중국이 중소분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기 때문에 '반종파 투쟁'을 통해 숙청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김정일에 있어서는 1997년부터 2000년 사이에 일어났던 '심화조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이 사건의 서막이라 할 수 있던 '서관히 간첩사건'은 30년 동안 미국의 고용간첩으로 비밀리에 활동하며 노동당의 농업정책을 깡그리 말아먹었다는 김정일의 지시하에 공개처형이 되었던 사건이다.

이렇게 숙청을 반혁명 세력의 제거를 위해 사용한 경우에는 비교적 숙청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반혁명 세력은 지도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고 이를 직접적으로 표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독재자의 성향을 떠는 지도자에게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에게도 반혁명 혹은 쿠데타 세력은 제거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김일성은 숙청을 과감하게 실시했으며 '수정주의자, 종파주의자'로 숙청대상자들을 몰아 숙청의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즉, 김일성은(혹은 김정일과 김정은도) 반혁명 시도의 결과에 관계없이 자신의 권력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려 한 세력을 숙청했으며 그 대상들은 이전부터 지도자에게 잠재적 위협 요소로 여겨지던 인물들이었다.

둘째는 지도자의 의견이나 노선과 이견을 가진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숙청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견을 가진 세력은 지도자와는 다른 노선을 택하거나, 지도자의 정치적, 사회적 선택에 부정적인 입장 혹은 이견을 표했던 세력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집단이 존재할 경우, 지도자는 자신의 권력에 대한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숙청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사회주의 국가를 건립하기 전부터 유지되던 다양한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가진 집단들과 함께 사회주의 국가 건립을 목표로 하는 지도자는 비(非)사회주의자들이 자신의 권력 유지에 불안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들을 숙청하고자 한다. 혹은 지도자의 집권 시기 내에 지도자의 경제적, 사회적 정책이나 노선에 이견을 표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숙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김일성의 경우 국가 건립 시기에 숙청된 오기섭과 조만식 숙청, 천리마 운동 시기의 조국광복회 출신의 김일성과 숙청이 이에 해당한다. 김일성의 국가 건립 시기의 조만식은 이념 정체성에서부터 김일성과 차이가 있었다. 조만식은 남북한의 통일을 주창했고 분할통치에는 결사 반대한 인물로써 김일성에게 권력 위협의 요소이기 보다는 김일성의 지배체제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인물이었다. 국가 건립 초기에 이념적 분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었고, 기대하고 있는 국가상 또한 김일성과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조만식은 김일성과 소련의 연합으로 숙청당했으며, 당 내 회의에서 가짜 사회주의자로 몰려

숙청당했다. 건국 초기의 오기섭과 친리마 운동 당시의 조국광복회 세력 역시 유사한 성향을 보인다. 오기섭은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안에서 입장차이를 보였고, 조국광복회 세력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이견이 있음을 주장했다. 두 세력 모두 수정주의자라는 죄목으로 숙청당했으며, 당내에서의 숙청의 합리화가 일어났다는 공통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특정 세력의 확장이 지도자에게 위협으로 느껴지는 경우이다. 같은 노선을 지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 내의 지도부 혹은 국민에게 높은 지지와 존경을 받고 있는 세력은 지도자에 대응할 만한 세력을 규합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확장 세력을 제거하는 경우는 앞에서 언급한 지도자에게 이견을 가진 세력을 제거하는 것과는 구별된다. 지도자와 같은 이념과 국가 목표를 공유하고 지도자의 정책적 선택에 동의하며 지지한다고 하여도 특정 세력이 자신의 세력보다 확장되는 것은 지도자에게 위협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6·25전쟁 중에 확장 세력들 혹은 확장 가능성이 있는 세력들을 숙청했다. 그는 각 전투의 패배를 숙청 대상들에게 전가했으며, 당의 지시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명목을 덧붙였다. 소련과 협력하여 조만식과 오기섭을 제거한 후, 소련과와 연안파, 박헌영파로 나뉘는 경쟁세력들로 인해 권력의 안정화를 피하기 어려웠으며 결국 이들을 완전히 숙청한다. 무정과 허가이의 경우, 북한의 내정에 대해 소련과 중국의 간섭을 야기하는 인물들이었고, 두 국가를 배후로 하여 원하는 만큼 득세 할 수 있는 위협적 존재였으며, 김일성의 유일지배체제 수립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숙청을 했다. 김정은에 와서 군의 2인자였던 리영호의 숙청과 김정일이 굳건하게 내각의 수장으로 만들어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장성택을 숙청한 것 역시 권력 공고화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같은 맥락의 숙청이라고 할 수 있다.

반혁명 세력, 이견을 가진 세력, 확장 세력 모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자신의 권력 안정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들을 숙청이라는 정치적 수단을 통해 제거함으로써 자신들의 지위 및 권력의 공고화를 피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반혁명 세력은 뚜렷하게 구분이 가능하지만 이견을 가진 세력과 확장 세력의 경우는 중첩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견을 가진 세력의 경우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지도자의 의견이나 선택과는 다른 입장을 표한 반면, 확장 세력의 경우는 지도자와 같은 의견을 표명한다 해도 지도자에 준하는 지지를 받고 있는 경우 지도자에게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분류가 가능하다.

위의 세 요인을 종합해보면 숙청 대상의 의도나 의지와는 관계없이 지도자의 숙청 대상에 대한 주관적 견해나 위협의 인식이 숙청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숙청이 객관

적인 진실이나 사실에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세 가지 요인으로 숙청의 요인들을 분류하였으나, 이는 연구 방향과 사건의 해석 방향에 따라 달리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숙청’이라는 것을 정치에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중국의 마우쩌둥이 국가수립과 문화대혁명 당시 수많은 인원을 숙청을 했던 것이나, 1930년대 스탈린의 대숙청 사건에서도 보듯이 사회주의 체제국에선 보편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 숙청의 정치적 해석을 하기 위해 김일성 시대 있었던 숙청사건을 예로 많이 들었으나, 이는 김일성 시대의 숙청이 사료적으로 검증된 것이 많고 사전연구가 많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지 김정일과 김정은이 별개일 수는 없다. 비록, 김정일과 김정은에 대한 연구가 아직까지 미비하긴 하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똑같은 권력 공고화 과정을 거쳐간다고 봤을 때, 숙청이라는 것은 지극히 독재국가 지도자 개인의 정치적 수단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대표적인 숙청과정을 비교함으로써, 이것이 단순한 숙청이 아닌 정치적인 수단으로서의 숙청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북한에서 숙청으로 대표되는 김정은의 공포정치가 김정은 정권만의 특징이 아닌 북한에서 독재 세력이 권력을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선택한 것이었음을 증명하는데 있었다. 위에서 분석했듯이 숙청과 후계구도에 관한 연구들을 토대로 실제 숙청과정을 분석해보면, 숙청의 원인을 반혁명 세력의 제거, 이권을 가진 세력의 제거, 확장 세력의 제거라는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이 세 가지 분류는 각각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시 적용가능한 것을 범주화 한 것이며 비단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주의 체제국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모델이다.

북한에서 권력 공고화를 위한 숙청은 현재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다. 앞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김일성이 독재체제를 공고화 하는 과정에서 숙청을 단행했다면, 김정일은 후계자의 입지를 단단히 하고 김일성의 키즈들을 숙청하는데 힘을 썼고, 김정은의 경우 장성택에 의한 수렴청정의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 과감한 결단을 하고, 어린 나이에 무시당하는 걸 극도로 혐오해 개인적인 이유로 인민무력부장까지 처단하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다. 집권 초기 4년 여의 시간동안 보여주었던 김정은식의 숙청은 비록 ‘공포정치’라는 단어로 설명 가능 할 만큼 끔찍하긴 하나, 김정은만의 독특한 정치적 행태가 아니라 그

의 아버지인 김정일도 보여주었던, 그의 할아버지인 김일성도 보여주었던, 그리고 소련의 스탈린이 1930년대 보여준 대숙청, 중국의 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시기 보여준 대 숙청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이 연구에서는 그 대상을 북한의 독재자 3명에 대해서만 한정을 짓고 있지만, 연구대상을 사회주의체제국 전체로 확대해 봤을 때 이러한 권력 공고화를 위한 숙청은 독재세력의 권력공고화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Daniel N. Nelson, "Charisma, Control, and Coercion: The Dilemma of Communist Leadership", *Comparative Politics*, Vol. 17, No 1, 1984.
- Herz, John H, "The Problem of Successorship in Dictatorial Regimes: A Study in Comparative and Institutions", *The Journal of Politics*, Vol.14(1), 1952.
- 강철환, "북한 군부 권력투쟁과 리영호 숙청", 『월간북한』, 2015년 11월호, 북한연구소, 2015.
- 김국후, 『비록: 평양의 소련군정-기록과 증언으로 본 북한정권 탄생비화』 (과주: 한울아카데미, 2004)
- 김덕홍, 『나는 자유주의자이다』 서울, 집사재, 1995.
- 고봉기 외, 『김일성의 비서실장: 고봉기의 유서』 서울, 도서출판 천마, 1989.
- 김홍광, "숙청은 북한식 독재체제의 생존방식", 『통일한국』 361권, 평화문제연구소, 2014.
- 림일, "김씨왕조 3대 숙청사(上)", 『월간북한』, 2014년 3월호, 북한연구소, 2014.
- 림일, "김씨왕조 3대 숙청사(中)", 『월간북한』, 2014년 4월호, 북한연구소, 2014.
- 림일, "김씨왕조 3대 숙청사(下)", 『월간북한』, 2014년 5월호, 북한연구소, 2014.
- 류길재, "1960년대 북한의 숙청과 술탄니즘(Sultanism)의 등장", 『국제관계연구』 제9권 제1호,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04.
- 박주현, "숙청의 회오리바람, 피로 물드려다", 『월간북한』 2014년 1월호, 북한연구소, 2014.
- 박형중 외, "수령독재 하에서 권력과 이권을 둘러싼 갈등 동학 그리고 장성택 숙청", 『북한연구학회보』 제18권 제1호, 북한연구학회보, 2014.
- 백준기, "8월 종파문제 재론: 종파, 분파, 그리고 당내경쟁", 『역사비평』, 통권 74호, 역사비평사, 2006.
- 백학순, 『북한 권력의 역사』, 과주, 한울아카데미, 2010.
- 북한연구소 편집부, "북한 세습독재체제 숙청사", 『월간북한』, 2015년 7월호, 북한연구소, 2015.
- 스즈키 마사유키(Suzuki Masayuki), "북한 인민군의 유일사상체계 확립 - '군별관료주의자' 숙청과 비대칭전략 완성", 『한일공동연구총서』, 연구총서7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2004.
- 안문석, "무정 숙청의 정치적 원인과 무정의 대응", 『통일정책연구』, 제24권 1호, 통일연구원, 2015.
- 이상우, 『북한정치변천-신정체제의 진화과정』, 서울, 오름, 2014.
- 이신철, 『북한 민족주의운동 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2008.
- 이우정, "사회주의국가의 권력승계에 관한 이념과 사례", 『북한학연구』, 제23호,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1993.

이중석, 『한국 현대사의 라이벌』, 서울, 역사비평사, 1992.

정창현, “사진으로 보는 북녘 역사: 당내 갈등 ‘8월 종파사건’으로 폭발 천리마운동 추진결정”, 『민족21』 2011년 8월호(통권 제 125호), 민족21, 2011.

조한범, “잔혹한 피의 숙청 김정은 시대에도 대물림?”, 『통일한국』, 380권, 평화문제연구소, 2015,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80173>, (검색일: 2023.10.27)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275880#close_kova (검색일: 2023.10.27)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303056#close_kova (검색일: 2023.10.27)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9/12/2014091290271.html (검색일: 2023년 12월 13일)

【 Abstract 】

A study on the Power Firming Process of North Korea's Supreme Leader :
Focusing on the Purge

Kwon, Ji Min

During the three-generation hereditary succession system from Kim Il-sung to Kim Jong-il and Kim Jong-un, North Korea has employed purges as a means to consolidate power and institutionalize dictatorship. This study aims not only to view purges as mere political tools but also to categorize the scope of purges by analyzing the forms of purges under the three dictators, thereby reinterpreting purges in the context of North Korea. Purges can be broadly categorized into those targeting opposition forces against the regime, those opposing the leader, and those expanded to include forces significant enough to influence the leader. Such categorization could also be applicable to other socialist regime countries. Furthermore, this study proves the significance of Kim Jong-un's purges, often referred to as “politics of fear” in the early stages of his reign, as not solely his autocratic behavior but as a universal phenomenon spanning from the regimes of Kim Il-sung to Kim Jong-il.

Key Words : Kim Il-sung, Kim Jong-il, Kim Jong-un, Purge, Consolidation of Power

• 논문투고일 : 2024년 1월 5일 / 논문심사완료일 : 2024년 2월 18일 / 게재확정일 : 2024년 2월 18일